

오피니언

데스크시각

기현호



‘선거는 축제’라거나, ‘축제이어야 한다’고 하는데, 과연 축제일까, 축제는 아니다. 밑질이 떨어져서 즐기는 구경꾼이라면 모를까, 승자와 패자의 운명이 극명하게 갈리는 부차용을 감안하면 축제처럼 치르기는 어렵다. 선거는 내편 내편의 싸움이다.

5년 전 출간돼 인기를 모았던 오쿠다 히데오의 소설 ‘면장선거’를 보면 실감이 난다. 여기서 선거는 그야말로 전쟁이다. 인구 2500명에 불과한 작은 섬에서는 4년에 한번 치러지는 면장선거로 온 동네가 들썩인다. 주민들은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진영과 어업으로 먹고 사는 그룹이 반반으로 팽팽하게 갈려 선거철만 되면 양측 치열 싸운다.

내편 내편의 치열한 싸움

선거에 질 경우 그들의 신세는 급전직하 낙락으로 떨어진다. 간부가 하루 아침에 청소과 경직원으로 강등되고, 초등학교 배식직원으로 밀려난다. 이 때문에 진편은 4년동안 복수의 칼을 갈아 선거전에

나선다. 모든 주민이 투사가 되어 선거운동을 하고, 투표를 한다. 한표가 아쉬운 지경이라 치매 노인까지 동원해야 한다.

이 섬의 주민들이 목을 매는 투표, 즉 참정권이 민초들 손에 주어진 역사는 그리 오래되지 않는다. 피지배자들에게 정치적 의사를 묻고 동의를 얻어내 국가를 통치

광주시민들의 송고한 희생이 밀거름이 됐고, 87년 ‘6월항쟁’과 같은 민주화시위가 직접적인 계기가 돼 대통령 직선의 권리를 향유하고 있는 것이다. 독재정권의 무릎을 꿇린 것은 수많은 시민들의 피와 절규였다.

18대 대통령 선거, 이제 여야 주자가 맞붙는 1대1 전선이 형성됐고, 두 후보간 본격적인 대결이 시작됐다. 그렇다면 유권자들도 나설 때가 됐다. 정권 재창출을 원하는 쪽이다, 아니면 정권교체를 갈구하는 쪽인지 자신의 의지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한날 면장선거가 그렇게 치열한데 대

선거는 축제가 아니다

하는 형태는 17세기 영국혁명과 18세기 미국혁명, 프랑스혁명을 거치면서 민중들의 피를 자양분으로 삼기 시작했다. 당시에도 재산이 있는 남성만이 투표권을 행사하는 등 제한적이었다.

이후 19세기, 20세기까지도 투표권 평등을 위한 지속적으로 험난한 투쟁은 계속됐다. 결국 노동자, 농민, 여성, 노예, 흑인 등도 이른바 ‘보통·평등선거’라는 권리를 얻어 똑같이 인간 대접받고 살게 된지는 채 100년도 안된다.

한국도 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령 선거는 두말할 나위가 없다. 보수와 진보의 대결이었는데, 어느 한쪽 전선에 참여해야 한다. 수세기 걸쳐 민중의 투쟁과 피로 얻을 만큼 투표권은 귀중하고, 냉혹한 현실에서 자신을 지켜주는 최상의 방편이기 때문이다.

사실 대통령 선거는 박근혜 후보나 문재인 후보, 그들이 하는 선거도, 그들만을 위한 선거도 아니다. 그들 중 하나는 선택될 뿐이다. 국민, 즉 나를 위한 선거이며 대통령은 나의 의사표시로 내가 정한다. 내가 정치의 주체이고 권력은 나로부터

나온다. 그러나 그 대통령은 내 운명과 대한민국 미래를 결정한다. 투표를 해야 할 이다.

초박빙 승부 내 한표 소중

더불어 일반적으로 선거에서 상대가 박차, 질 것 같고 한표의 영향력이 떨어질때 기권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번 대선은 무엇보다 긴장감이 넘친다. 단일화 후 여론조사마다 박근혜가 문재인보다 지지율에서 미세하게 앞서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우열을 점치기 어려울 정도의 살얼음 승부다.

결국 승패는 1% 안팎의 표차이로 갈릴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러나 유권자의 한표 한표는 더욱 소중해졌고 이 정도면 투표장에 갈 명분은 충분하다.

물론 대통령 하나로 모든 것이 해결되진 않는다. 그렇지만 내가 원하는 대통령, 그것은 나의 현실을 타개할 전제조건은 된다. 최선이 없다면 차선이라도 선택해야 한다.

그래도 기권의 무력감을 벗어던지기 어려운 유권자가 있다면 시 한편을 인용한다. 안철수가 최근 한 토론회에서 낭송한 조동화 시의 일부다.

나 하나 꽃 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마라/ 내가 꽃피고, 나도 꽃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편집부특약> kihh@kwangju.co.kr

시설

최악의 행정사례 남긴 어등산골프장 허가

광주시민의 휴식공간이 돼야 할 어등산개발이 결국 27홀짜리 골프장으로 전락하게 되자 광주시의회와 지역민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광주시가 어등산골프장 우선 개장을 반대하는 시민 여론을 끝내 외면하고 정식 개장을 허가했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26일 “어등산골프장 운영 주체인 ㈜어등산리조트가 접수한 체육시설업 등록서를 검토한 결과, 애초 골프장 사업계획 승인시 시설물도 포함돼 있었으나 조성되지 않은 골프장과 수위실에 대해 향후 보완토록 하는 조건부 등록증을 교부했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골프장의 정식 개장이 가능해진 것이다.

따라서 시민을 위한 테마파크를 조성하겠다는 어등산개발의 당초 취지가 사라지고, 수익성 사업자인 골프장과 유통단지만 남는 기형적 구조가 될 공산이 커졌다. 이는 그동안 ‘골프장만을 개장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해온 강 시장이 시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버린 것이어서 시정에 대한 불신과 함께 ‘무책임 행정’의 전형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어등산개발은 포병학교 사격장으로 폐허가 된 부지를 시민휴식공간과 지역관광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정부로부터 이양받아 민자로 추진한 사업이다. 골프장 우선 개장은 사업자만 특혜를 받게 되고, 어등산개발협약에 명시된 ‘테마파크와 함께 개장한다’는 원칙에도 어긋난다.

결과적으로 시민들을 무시한 처사이자 있어서는, 있을 수도 없는 최악의 행정사례를 남긴 것이다. 시의회와 지역민들이 광주시에 책임을 묻고, 시와 업체간 유착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강 시장은 시민들에게 즉각 사과하고, 골프장 사업의 허가 이유와 향후 테마파크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 어불책 넘어야한다면 시민들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주민소환제든, 1년6개월 후 지방선거에서든 책임을 피할 길은 없다.

나로호 3차 발사 이번엔 기필코 성공해야

우주강국의 꿈을 실현할 우주발사체 ‘나로호’가 29일 다시 발사대에 선다. 발사를 이틀 앞둔 27일 고층 나로우주센터에는 긴장감과 기대감이 감돌고 있다고 한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항공우주연구원은 이날 “로켓에 대한 기술적 점검 결과 나 기상 예보 등으로 미뤄 예정대로 29일 나로호 3차 발사를 시도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3차 발사는 그 어느 때보다 성공에 대한 기대가 높다. 1차 때 제대로 분리되지 않아 실패의 원인이 된 페어링(위성 덮개)의 경우 2차 발사 전 10차례의 실제 분리 시험과 400회에 걸친 단위 부품 및 시스템 시험을 통해 문제를 개선했다.

2차 발사 실패 이후 추가 조치로 페어링 분리에 사용되는 기폭장치도 보다 안전한 저전압 방식으로 바꿨다. 특히 지난달 26일 문제를 일으켜 교체된 새 어댑터 블록에서도 문제가 발견되지 않

았다. 연구진은 새 어댑터 블록에 대해 실제 상용처럼 6시간 동안 220기압으로 시험을 이틀 앞둔 27일 고층 나로우주센터에는 긴장감과 기대감이 감돌고 있다고 한다.

나로호는 지난 2009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발사됐으나 모두 궤도 진입에 실패했다. 2009년 나로호 1차 발사 당시 1단 로켓 분리, 키모터 연소, 위성분리까지 성공했지만 한쪽 페어링이 분리되지 않아 실패로 끝났다. 이듬해 2차 발사도 1차 발사 때보다 훨씬 이른 시점에서 통신이 끊기면서 실패하고 말았다. 상당 비행중단사태에 오작동이 있었던 것으로, 이번에는 저전압 페어링 기폭장치로 기폭시스템을 변경했다.

이번 나로호 발사는 우리 발사체로 쓰여온 최초의 위성이라는데 의미가 크다. 우주선진국 대열에 합류하기 위한 중요한 도전인 셈이다. 더 이상의 실패란 있을 수 없다. 이번엔 반드시 성공해 우리 국민의 10년 염원에 멋진 비상어댑터 블록에서도 문제가 발견되지 않

기고



이승현

노인과 어르신 어떻게 다를까

‘어떻게 늙어야 하는가’에 대한 가치기준을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 기준은 바로 우리말 속에 있다. 우리말에는 ‘늙은 사람’을 표현하는 다섯 가지 말이 있다. 늙은이, 노인, 노인장, 어른, 어르신이다. 나이만 든 사람을 비하할 때 늙은이라 하고, 중립적으로 표현할 때 노인, 노인을 높여서 불러야 하는 상황에서 노인장이라고 한다. 이 세 가지 표현에는 육체적인 늙음을 있을지언정, 정신적인 의미는 없다.

하지만 어른과 어르신은 다르다. 늙은이, 노인, 노인장과 어른, 어르신을 구분하는 경계는 바로 ‘얼’이다. ‘얼’은 생명의 본질이고 만물의 근원이며, 정신이다. 얼을 깨우쳐야 어른이 되고 어르신이 될 수 있다. 어른과 어르신은 육체적인 나이가 아니라, 정신적인 기준, 양심의 나이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우리는 ‘얼’의 의미를 ‘얼굴’이라는 말에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영어로는 face, 한 자로는 안면(顔面)으로 서로 마주 대하는 면이라는 일반적인 의미이다. 그러나 우리말 얼굴은 ‘얼’과 ‘굴’이 합쳐서 나온 말이

다. 얼굴에는 눈구멍, 콧구멍, 콧구멍, 입구멍 등 많은 굴이 있고, 그 굴로 얼이 드나든다는 정신적인 의미이다. 얼굴은 ‘얼이 드나드는 굴’ 또는 ‘얼이 깃든 굴’이라는 의미이다.

얼굴은 사람에게만 쓰고, 동물에게는 쓰지 않는다. 만물의 영장인 사람은 당연히 얼을 가져야 한다. 얼을 가지면 얼굴을 들고 당당하게 살 수가 있다. 하지만 얼이 빠지면 얼굴을 들고 살 수가 없다. ‘얼’이 빠진 사람을 ‘얼간이’라고 한다. ‘얼’을 가지면 조화로운 ‘좋은 사람’이 되고, ‘얼’이 빠지면 나쁜 사람은 ‘나쁜 사람’이 된다. 자기만 알고 자기 이익만 앞세우는 이기적인 욕망에 이끌려 사는 사람이 곧 나쁜 사람이다.

어른과 어르신에는 나이가 든 좋은 분이 라는 의미가 담겨있다. 사람이 나이가 들어 가면서 얼을 깨우치고 살아가면 ‘어른’이 되고, 그 얼이 신의 경지까지 이르면 ‘어르신’이라 한다. 그래서 ‘어르신’은 사람과 세상을 사랑하는 큰 마음(大德)을 품고, 사람과 세상을 살릴 수 있는 큰 지혜(大惠)가 열리고, 그것을 실천하는데 온 힘(大力)을 다해 애쓰는 분으로,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흠

모를 받는 분이다. 우리가 ‘늙었다’나 ‘노인’이라는 표현을 싫어하는 내면적인 이유에는 얼을 갖고, 정신을 차리고 살아가는 정신적으로 성숙하고 존경받는 어른, 어르신이 되어야 한다는 마땅한 사람의 도리를 유전 받아서 알지도 모른다. 나이란 먹지 말고, 어른과 어르신으로 좋은 사람, 흠의인간이 되어야 한다. 이렇듯 우리말은 국학의 정수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어, 우리말은 바로 국학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얼을 가진 어른과 어르신이 많은 사회가 좋은 사회다. 그렇지 못하고 노인만 많으면 그 사회는 불행한 사회다. 어른이 되고 어르신이 될 수 있는 내면의 공부와 실천을 하는 노년 인구가 많아지면, 건강하고 행복한 복지국가가 될 것이다. 평균수명 80세,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10%를 훨씬 넘어선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고령화 사회의 문제를 대처하는 가장 슬기로운 길이 여기에 있다.

우리나라는 앞으로 어른과 어르신이 많이 사는 좋은 나라가 되어야 한다. 우리말 속에 이렇듯 깊은 뜻과 정신이 숨어 있다. 우리말 속에 사람이 살아가는 할 도리와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는 물론 세계적인 정신문화대국이 될 수 있는 정신이 샘물처럼 담겨있다. 그 정신의 샘물을 퍼 올려야 할 때다. <글로벌사이버대학교 총장>



대선후보들의 보건의료 관련 공약

다는 뜻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약 5조원의 추가 비용이 예상된다.

두 번째는 건강보험 보장률 목표치 공약이다. 현재 63% 정도인 전체 진료비 보장률을 박 후보는 80%, 문 후보는 70% 후반대로 올리겠다고 각각 공약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에 의하면 보장률을 1%포인트 올리기 위해서는 약 5000억원이 필요하며 각각 후보들의 공약을 실현하려면 산술적인 계산해도 매년 약 14조 정도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 전반적인 의료비 부담이 국민의료시설에 대한 이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보장률을 약간만 올리더라도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선택 진료비와 상급 병실료, 초음파, MRI 등을 급여화 한다는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서도 엄청난 재원이 필요하다. 병원 입원 시 도움을 받는 간병비에 대한 급여화 공약도 있다.

현재 수술이나 질병으로 약 2주 정도 입원을 할 경우 병원에 지불하는 본인부담금보다 간병비가 더 많은 실정인데 이를 급여화한다면 얼마나 많은 재원이 필요할 것이며 늘어난 간병에 대한 수요는 어떻게 감당하고 누구에게 간병을 지원할지를 판단하는 데도 많은 노력과 재원이 필요하리라 예상된다.

대중 집착해도 1년에 약 30조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2012년 우리나라 1년 예산이 약 320조이다. 전체예산의 약 10% 정도가 증가할 정도의 공약이다. 재원

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도 제시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대선 후보로서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라고 본다. 물론 TV 토론회에서 재원의 조달을 위한 방법들을 제시했지만 대중 넘어가려고 하는 느낌을 떨칠 수 없다. 물론 동네 의원의 ‘1차 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지역거점 병원 기능의 강화, 필수 의약품과 희귀약품, 필수 예방백신 등 공공적인 제약 산업의 육성과 같은 긍정적인 공약들도 있다.

공약은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목적, 제도적인 토대가 있어야 실현될 수 있다. 집권

뒤에도 실천할 수 없는, 유권자들에게 생색만 내려는 화려한 공약으로 국민들을 현혹해서는 안 된다. 일선의 의료기관에서는 일련의 공약들이 실현되는 과정에서 부족한 비용을 각각의 의료기관에 정당하지 않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전가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몇 년 전 신종 플루가 유행했을 때처럼, 현재 의료계에는 의료수가결정 구조개선, 총액계약제 및 성분명 처방 중단, 포괄수가 제도 개선 등과 같은 해결해야 하는 과제들이 많다.

전문가 집단인 여러 관련 학회뿐 만 아니라 일선 의료기관들이 제시한 것을 바탕으로 보건의료 관련 공약들을 보다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것으로 정리하기를 기대한다.

<동아병원장>

無等鼓

‘괴물과 싸우는 사람은 그 싸움 속에서 자신도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당신이 오랫동안 심연을 들여다 보면, 심연 역시 당신을 들여다 본다. (He who fights with monsters should look to it that he himself does not become a monster. And when you gaze long into an abyss the abyss also gazes into you.)’

1886년 독일의 철학자이자 시인인 니체(Nietzsche)가 발표한 책 ‘선악의 저편(Beyond Good and Evil)’에 나오는 문장이다. 워낙 유명한 글인 만큼 해석도 다양하지만 ‘인간 내부에 숨겨져 어둡고, 비밀스러운 부분들

씩씩 추론들이 잇따르고 있다. 니체가 말한 대로, 성에 대한 은밀하고도 집요한 관심이 결국엔 괴물이 되어 자기 자신을 집어삼킨 셈이다. 왜곡되어 무차별적으로 퍼뜨려진 성에 관한 무수한 정보들이, 괴물을 잘못하게 하는 수많은 밤을 만들었으 터다.

니체는 ‘선악의 저편’에서 ‘한 사람의 성욕의 성질과 정도는 그의 정신의 가장 높은 곳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라고 설명했다. 단 하나의 해석을 허락하지 않는 난해한 문장이지만, ‘성욕이 인간 정신의 심연에 파리를 틀고 있다.’라는 기

본 전제가 깔려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크든 작든 스캔들이 날 때마다 모두가 한 목소리로 당사자들을 비난하지만 실제론 자기 자신도 ‘아무도 모르는’ 심연을 간직하고 있다는 것인데, 사실이 어떤 비극일까, 코미디일까.

/홍행기 정치부 차장 redplane@kwangju.co.kr

심연(Abyss)



은펜칼립은 오피니언 기고 최우수작 수상자의 모임인 ‘은펜칼립 회원들의 칼럼을 쓰는 코너입니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논설주간 申培樂 편집국장 曹慶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매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홍보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여론재무부 2200-62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정경부 2200-612	체육팀 2200-697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대표 FAX 222-4918>	사진부 2200-693	<F A X 227-9500>	<F A X 227-9500>
사회부 2200-616	조사부 2200-571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대표 FAX 222-4267>	전산부 2200-685	기획사업국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